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실습 평가에서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최은영

조선간호대학교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Self-efficacy on Test Anxiety in Simulation Evaluation of Nursing Students

Eun Young, Choi

Chosun Nursing College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self-efficacy on test anxiety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ituation after applying the simulated training program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in the 3rd grade of C university in Gwangyang city.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est anxiety according to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gender($t = -2.00, p = .047$), satisfaction of major($F = 5.23, p = .006$) and simulation participation($F = 3.20, p = .043$). The factors affecting test anxiety were gender,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and general self-efficacy,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33.1%($F = 11.27, p < .001$). Especially general self-efficacy showed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beta = -.33, p < .001$). **Conclusion** : Because test anxiety can cause low performance due to lack of learning ability or examination ability, it can help students to fully demonstrate their ability in the test situation through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or self-efficacy enhancement training that changes perfectionism tendency will be.

Key words : Nursing, Perfectionism, Self efficacy, Test anxie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 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실무현장에

서의 역할과 업무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비롯하여 간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및 태도까지 통합하여 가르쳐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교육이 확대 실시되고 있다[1].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학생의 성취에 대한 평가는 학생의 역량개

발 및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시뮬레이션 교육의 평가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임상상황의 역할과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포괄하여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무능력 및 태도까지 통합 평가하여야 하며,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2]. 수행능력평가는 시나리오 상황에서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팀원들이 서로 협동하여 간호중재를 정확하게 수행하는가를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수기능력평가 뿐만 아니라 자가평가,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3]. 따라서 학생들은 지필 시험평가와 다른 시험상황으로 인하여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시험불안이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괴롭히는 불쾌한 감정 상태를 일컫는 개념으로[4], 취업에 성적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간호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는 시험에 민감하며, 시험불안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신감의 상실과 부정적인 정서 등을 경험할 수 있다[5]. 따라서 시험상황에서 학업성취를 방해할 수 있는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벽주의자들의 정서적 특징 중 첫 번째는 불안으로[5],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6-10]. 완벽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맡은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 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너무 높은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며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러한 요인은 결국 불안을 야기시킨다[6]. 이러한 완벽주의는 단일 차원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성향으로[7], 완벽주의적인 행동이 어느 대상으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눈다[8]. 따라서 완벽주의의 하부요인에 따른 다차원

적인 접근을 통한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9]. 개인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상황을 회피하지만, 자신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을 갖고 상황에 직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8]. 즉 수행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을 더 느끼게 되지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불안을 덜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시험불안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험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주로 학업성취[6], 지각된 정서적지지[10], 사회적지지[11], 자아존중감[12], 우울[13], 대처방식[14] 등과의 관계연구가 있었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에게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적용 후에 수행능력평가 상황에서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의 운영과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수행능력평가 상황에서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시험불안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한 후 수행능력 평가 상황에서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C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235명의 간호학생이었고, 시뮬레이션 교육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다. 표본수 선정을 위해 G-power 3.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효과크기(f^2)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예측요인 7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적정표본의 크기는 153명으로 나왔다.

3. 연구도구

1) 완벽주의

본 연구에서는 Hewitt와 Flett[7]가 제작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Choi[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10문항,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10문항,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매우 그렇다”에 7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Choi[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78이었다.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5]이 개발하고 Hong[13]이 번안한 SES(Self-Efficacy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 17문항과 사회적 효능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Hong[13]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8이었다.

3) 시험불안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등[16]의 시험불안 검사를 Choi[17]가 한국문화와 언어에 적합하게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인지적 요인인 걱정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정서적 요인인 정동요인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매우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시험 불안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Choi[1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92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들은 연구기간동안 시뮬레이션교육에 참여한 후 수행능력평가를 받기 전에 대기실에서 설문지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자료

Table 1. Differences in Test Anxie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5)

Variables	Categories	N(%)	Test anxiety	
			Mean(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14(6.0)	62.79(11.90)	-2.00(.047)
	Female	221(94.0)	69.55(12.30)	
Motivation for admission to nursing	Self choice	106(45.1)	68.91(12.31)	2.11(.125)
	Other choice	31(13.2)	73.26(12.98)	
	Self and other choice	98(41.7)	68.11(12.07)	
Satisfaction of major	Very higha	33(14.0)	65.06(11.84)	5.23(.006) c > a
	Highb	130(55.3)	68.25(11.86)	
	Averagec	72(30.6)	72.65(12.76)	
Satisfaction with simulation	Very high	33(14.0)	66.03(13.63)	2.65(.073)
	High	136(57.9)	68.65(11.76)	
	Average	66(28.1)	71.74(12.34)	
Simulation participation	Active involvement ^a	48(20.4)	67.50(13.47)	3.20(.043) c > a
	Involvement ^b	136(57.9)	68.31(11.75)	
	Averagec	51(21.7)	72.94(12.35)	

수집 전에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진행 전 대상자 모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지에는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에 참여하고 언제든지 자의로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 불참과 중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며, 설문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되며 작성된 설문내용은 코드화하여 보관하며 연구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다.

명(71.9%)이 ‘매우 높다’와 ‘높다’라고 나타났으며, 시뮬레이션 참여도는 184명(78.3%)이 ‘적극 참여’와 ‘참여’라고 응답하였다.

2.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 차이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은 성별($t=-2.00, p=.047$), 전공만족도($F=5.23, p=.006$), 시뮬레이션 참여도($F=3.20, p=.04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 간의 관계

대상자의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완벽주의는 시험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26, p<.001$). 하위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r=.17, p=.011$)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r=.34, p<.0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r=-.34, p<.001$), 자기효능감의 각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

대상자의 학업관련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3.5세(± 3.08)이었고,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221명(94.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학과 지원 동기는 106명(45.1%)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라고 하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시뮬레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163명(69.3%), 169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 235)

		Perfectionism				Self efficacy		
		Total	Self oriented	Other oriented	Socially imposed	Total	General	Social
		r(p)	r(p)	r(p)	r(p)	r(p)	r(p)	r(p)
Perfectionism	Total	—						
	Self oriented	.84** ($< .001$)	—					
	Other oriented	.73** ($< .001$)	.51** ($< .001$)	—				
	Socially imposed	.83** ($< .001$)	.49** ($< .001$)	.39** ($< .001$)	—			
Self efficacy	Total	.06 (.361)	.18** (.006)	.1567* (.016)	-.13* (.040)	—		
	General	.07 (.293)	.21** (.001)	.14* (.034)	-.13* (.046)	.95** ($< .001$)	—	
	Social	.02 (.783)	.05 (.451)	.14* (.031)	-.10 (.143)	.74** ($< .001$)	.49** ($< .001$)	—
Test anxiety		.26** ($< .001$)	.09 (.158)	.17* (.011)	.34** ($< .001$)	-.34** ($< .001$)	-.36** ($< .001$)	-.17** (.010)

하위요인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r = -.36, p < .001$)과 사회적 자기효능감($r = -.17, p = .010$)은 모두 시험불안과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완벽주의의 세 가지 하위요인과 자기효능감의 두가지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r = .21, p = .001$)와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r = .14, p = .034$)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r = -.13, p = .046$)는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으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r = .14, p = .03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시험불안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학업관련 특성 중에서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 전공만족도, 시뮬레이션 참여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1은 학업관련 특성 중 전공 만족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5%이었다($F = 5.03, p = .002$). 모형 2에서 완벽주의 중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추가한 설명력은 16%이었으며($F = 9.64,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2, p < .001$). 모형 3에서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을 추가한 설명력은 24%이었으며($F = 11.27, p < .001$),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beta = .26, p < .001$)와 일반적 자기효능감($\beta = -.33, p < .001$)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한 후, 시나리오 상황에서 대상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팀원들이 협동하여 간호중재를 정확하게 수행하는가를 평가하는 수행능력평가를 앞두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압박감과 불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Test Anxiety

(N=23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eta(p)$	$\beta(p)$	$\beta(p)$
Gender(male=1)	.09(.192)	.12(.059)	.13(.035)
Satisfaction of major	.17(.017)	.14(.035)	.08(.224)
Simulation participation	.08(.226)	.09(.174)	.04(.532)
Other oriented perfectionism		.03(.619)	.10(.123)
Socially imposed perfectionism		.32(<.001)	.26(<.001)
General self efficacy			-.33(<.001)
Social self efficacy			.03(.650)
R ²	.06	.18	.26
Adjusted R ²	.05	.16	.24
F(p)	5.03(.002)	9.64(<.001)	11.27(<.001)

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에서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즉,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학생이 심한 시험불안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는 Cho[18]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으나, 자기 및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와 상관성이 없고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만 높은 상관관을 가진 Park[8]의 연구와 완벽주의 하위요인이 모두 시험불안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인 Lee와 Sohn[19]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높은 기준을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판단하며 사소한 실수에 용납하지 못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므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와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중심의 수행능력평가가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이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의미있는 타인인 교수가 자신에게 부과한 학업에서의 성취나 기대수준이 너무 높고 본인이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담

이 되는 경우에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시험불안의 관계에 관한 연구[8,11,18,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신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시험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간에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완벽주의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 있다는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연구와[8,18,21],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연구[14],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연구[20]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가 정적인 상관관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8]의 연구에서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가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완벽주의의 적응적이고 자기발전적인 측면을 보여주었고,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자는 실패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일을 성취하려는 태도가 일에 대한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완벽주의자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 적응에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완벽주의를 변화시켰을 때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시험불안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불안을 예측하는데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8,18]과 같은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지고[22],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성공적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교육의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23]. 그러므로 시험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에게는 자기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리경험과 성취경험을 통하여 본인이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고, 과거의 성취경험을 떠올려봄으로써 학습의욕 및 성취욕구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완벽주의자들은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 타인으로부터 완벽하지 않다는 비판을 듣고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여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갖는다[18]. 특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자는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 부과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집착하게 되고[19], 그 결과 시험불안이 높아진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시험불안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부정상관관계에 있으므로 대표적인 부적응적 요소가 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을 변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재검증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주위의 노력이나 상황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강화하는 교육이

나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의 연구 대상자는 지필평가나 과제수행과 같은 개별평가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나 간호상황에서 요구되는 팀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 후에 조별 수기능력평가뿐만 아니라 자가평가, 동료평가를 포함하는 평가 상황에서 시험불안 관련 변인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은 간호학생의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뮬레이션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G광역시 소재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3학년 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학업관련 특성에 따른 시험불안은 성별, 전공만족도, 시뮬레이션 참여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상자의 완벽주의는 시험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은 시험불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대상자의 시험불안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불안은 학습 능력이나 수검 능력의 부족으로 낮은 수행능력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완벽주의 성향을 변화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자기효능감 강화훈련을 통해서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의 운영과 평가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감소 프로그램이나 일반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험불안은 개인이 시험을 어떻게 평가하며 시험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별로 협력하여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실기평가 상황에서 측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개별평가와 조별평가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나 수행능력평가와 지필평가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한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수행능력 평가 상황 경험에 따른 시험불안 요인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도 제안한다. 셋째, 완벽주의 중 하위 영역인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는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는 시험불안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완벽주의의 하위 척도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완벽주의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력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완벽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Kim HR, Choi EY, Kang HY, Kim SM.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Satisfaction, Learning Attitude, Self-efficacy and the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fter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Emergency Nursing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 5-13.
2. Shin YH, Hur HK, Park SM, Song HY, Kim GY.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linical Nursing Practice Course for Improvement of Nursing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7;13(1): 32-40.
3. Kim JY, Choi EY. Learning Element Recogni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 Receiving PBL with Simulatio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008;20(5):731-742.
4. Choi WH. A study on test anxiety of perfectionists in examination stress situation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wangj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999. p.1-83.
5. Chung TG. A study on 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propensity of adult learners on exam anxiety [master's thesis]. Jeonbukdo: Woosuk University; 2004. p.1-54.
6. Park M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t disposition, test anxiety and achievement [master's thesis]. Gangwondo: Kwandong University; 2002. p.1-60.
7. Hewitt PL, Flett GL.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91;100:98-101.
8. Park JM. The relatio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test anxiety [master's thesis]. Busan: Kyungseong University; 2003. p.1-48.
9. Bandura A. Self-efficac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1982;37:122-147.
10. Cho SY.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perceived emo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oriented perfectionism and test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Daegu University; 2015. p.1-54.
11. Jun HS. A study on relation among the social support of high school girls, self-efficacy and the exam anxiety [master's thesis]. Busan: Kyungseong University; 2007. p.1-46.
12. Yoon SU, Kwon YS. Relationship between Test Anxiety and Self-esteem in Partial Health related Department Convergenc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5;6(5):91-98.
13. Hong HY.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5. p.1-73.
14. Ha JH, Jo HI.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

- ism, Stress, the Ways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College 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06;7(2):595-611.
15.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51:663-671.
 16. Spielberger CD, Gonzalez HP, Taylor CJ, Anton B, Algare WD, Foss GR, Westberry LG. Preliminary manual for the tes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1980. p.1-36.
 17. Choi JS.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anxiety, test anxiety, academic anxiety, mathematics anxiety and math grades[Dissertation].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89. p.1-100.
 18. Cho YM. An effect of teenagers' perfectionistic tendency and self-efficacy on the test anxiety[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3. p.1-93.
 19. Lee HJ, Sohn WS. Effects of Self-oriented and Other-oriented·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Test Anxiety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3;10(1):219-239.
 20. Yum SC, Park HJ. How Perfectionism relates to Test Anxiety: Testing a Mediation Model of Academic Self-efficacy in Girls'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5;2(1):19-35.
 21. Jang HJ, Ha EH.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Test Anxiety of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8;5(3):251-267.
 22. Hyeon IS, Bae YJ.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The Self-efficacy, Confid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Lower-Class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7;8(1):163-171.
 23. Park EH, Kim HS, Kim JO. The Effect of Convergence Action Learning Techniques in Simulation Cla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5;6(5): 241-248.